

목포시, 국립 의과대학 유치 전력투구 나섰다

시민 공감대 확산에 총력 정치권 건의활동 강화 등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지난 30여년 간 꾸준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최근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 신설 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립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의 30년

숙원을 이루기 위한 대정부 설득과 범국민적 여론 조성에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쏟고 있다.

2007년과 2012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 반영되었고,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목포대에 방문했을 당시 의과대학 유치를 건의해 201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육부가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용역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70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 2조4335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3355명 등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0년 5월에는 도내 의과대학 유치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해 전남도·전남

도의회·목포시·목포시의회·목포대·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와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를 열망하며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최근 목포시·신안·무안·영암·해남·진도군 의회가 전남권(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전남 182개 기관·직능·시민단체가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전남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과 행사 참여자들에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널리 알리는 등 의대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월6일에는 여야 당대표에게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실장을 면담하고 2025년 대학 입학 의과대학 정원에 신설의대 정원 배정과, 배정되는 의대 정원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의 취약한 의료현실과 의대 설립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권(목포대) 신설 의대 정원 100명, 500병상 규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을 요청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남 서남권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 맛집 20선’ 리플릿 제작 음식점 위생등급도 소개

강진군은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강진 맛집 20곳을 소개하는 ‘강진맛집 20’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는 강진맛집 20곳의 대표메뉴와 상세한 정보가 실려있다. 또한, 강진지도에 식당 위치, 음식특화거리(마량미향집거리,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관광명소 표시를 통해 관광객들이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21개소 현황도 소개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리플릿은 지역의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지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배포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불법·퇴폐 위법 행위 점검 강진군, 22일까지

강진군은 오는 22일까지 연말연시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단속을 위해 2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3일부터 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간판에 업종표시(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 출입·고용 여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호객행위 △종업원 명부 기록 및 관리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재료 보관 위생상태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도서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진도군, 응급환자 최적 시간 확보

진도군은 도서마을 응급환자 대비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과 함께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군은 도서지역 중 연결이 안된 낙도 섬마을 특성상 의료접근성 저하와 고령화로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건·공공기관이 없는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조도면 소마도·독거도 등 12개 섬마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각 마을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며 “마을이장과 생활관리지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취약계층 주거 봉사활동 앞장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면장 이재광)이 지난 12일 봉사단을 긴급 모집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무안군 현경면에 따르면 지난 7일 쌀 배달기사의 신고로 발굴된 최모 어르신은 자택이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과 왕래없이 생을 보내던 홀몸어르신이며, 부엌 천장이 내려앉고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오염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긴급하게 환경정비를 요하는 상태였다.

현경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광, 박종범),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이삼남),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 현경파출소(소장 정옥원), 무안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등 긴급 모집한 봉사단과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 내외부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도배장판 시공을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무안군 현경면이 봉사단을 구축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력난 해소’

618명 입국 전남 최대인원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특목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은 618명으로 전남 최대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입국한 근로자는 412명,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인원이 206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입국하는 초청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대거 몰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해남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상 국가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근로자 선발은 물론 입국 후 사후 관리까지 세심한 관리 체계를 갖춰 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운영실태를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입국자 중 68명은 지난해 일했던 근로자가 재입국해 기존 농가에 배치될 정도로 농가와 신뢰관계 구축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성실한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추천제도를 활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목포시, 집중 홍보 나서

목포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예방에 나섰다.

목포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를 독려하고 불이행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종합(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하거나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과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보험 안내 전단지 제작에 다중밀집 지역에 배부했으며 시청 누리집 및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내년 2월25일까지

목포시는 기증받은 나전칠기의 예술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현대한국나전 36인전’ 특별전을 연장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전은 관광객 호평과 인기에 힘입어 내년 2월25일까지 2개월 이상 연장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나전칠기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가

의 진상품이나 양반 사대부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됐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신혼상업자층이 형성돼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전칠기는 더욱 광활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별전은 이러한 나전칠기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대거 전시하고 있다. 그중 섬세한 문양과 줄임질 기법으로 나전칠기 무형문화재의 스승격인 전성규의 ‘산수문나전옷칠대궐반’이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천하일품 김봉룡의 ‘건칠용봉문호’를 포함한 28점, 옷칠 보

유자김태희의 ‘십장생문나전주칠의걸이장’ 등 7점, 굵은줄 보유자 송주안 1점, 송방용 13점, 최상훈 4점, 줄음질 보유자 이형만 3점이 있다.

이 밖에도 시도무형문화재 민종태, 신중현, 손대현, 정명채, 김상수, 양유전 등 대한민국 나전의 근현대를 잇는 대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시 ‘현대한국나전 36인전’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 관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입장할 수 있으며,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